

날피북춤의 제의성과 사회기능성 고찰

김 미 숙*

I. 서론	IV. 결론
II. 날피북춤의 이해	참고문헌
III. 날피북춤의 제의성과 사회·문화적 기능	Abstract

1. 서론

민속춤으로 발전해 온 북춤은 고대로부터 우리의 문화를 이루는 우리 민족 삶의 방식과 정서가 스며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고대 제천의식의 제의성과 함께 시작된 북춤은 오랫동안 우리 민족에게 사랑받으며 전승·발전해 온 것으로서, 우리의 공동체의식에서 비롯된 전통 미의식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북춤은 춤 기능만 드러나고 춤의 원초적인 의미와 내용은 열어진 채 행해지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더구나 날피북춤은 고대 의식에서 내재하고 있는 제의성이 강한 북춤으로 다른 지역의 북춤과는 차별성을 지니고 발전해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2호인 날피북춤을 주제로 유래와 전승 및 대표적인 춤사위 연구를 통해 춤의 구조와 의미를 동양철학과 결부되어 있는 점을 조사하고 연구할 것이다. 그리고 제의성과 집단 공동체적·축제적 기능을 통해 춤의 제의성과 사회기능 및 문화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날피

* 경상대학교 민속무용학과 교수, 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회원, dance1958@hanmail.net

북춤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구축하여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일보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 논문은 대구지역의 비산농악을 모체로 한 날피북춤을 인문과학적 방법인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또 날피북춤보존회에서 제시한 날피북춤의 영상으로 춤사위와 춤의 의미를 분석하였고, 윤종곤 예능보유자의 면담을 통해 진행절차를 비롯한 춤의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았다. 날피북춤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음악적 연구¹⁾와 춤에 대한 연구²⁾로 대별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춤 진행과정에 대한 연구가 주가 되어 있는 까닭에 대표적인 춤사위와 춤구조를 결부하여 고찰하였다.

II. 날피북춤의 이해

1. 유래와 전승

날피북춤의 유래는 16세기 이후부터 대구광역시 비산동 ‘날피’를 중심으로 파생된 까닭에 그 내용과 과정이 비산농악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며, 비산동의 정월 대보름날 관행되어 온 비산농악의 지신풀이인 천왕메기와 함께 발전되어 왔다. 날피북춤은 생성 당시 이 고을의 원님을 영접하고 환송할 때, 그리고 고을 백성에게 추앙받던 한 원님이 순직한 후, 그 원혼에 대한 제향의식에서 비롯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민중의 놀이마당과 무대예술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³⁾

‘날피’의 남서쪽에서 달성공원의 북동쪽으로 가로지르는 관도(官道)가 조선시대부터 나 있고 ‘날피’ 옆을 지나는 언덕을 ‘원고개’라고 불렀다. 지금도 당시 관도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북비산 로터리에서 달성공원 쪽으로

- 1) 유대안(2004), 날피북춤의 장단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명호(1998), 대구지역의 날피북춤 연구, 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대안(2006), 『날아온 산 사람들 그리고 날피북춤』, 계남영남학총서 2,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 2) 최혜정(1905), 대구날피북춤과 밀양오북춤의 비교 연구,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재희(2001), 날피북춤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유대안(2004), 날피북춤의 장단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3.

www.kci.go.kr

비스듬히 길이 나 있으며, 이 도로는 달성공원 옆 '인동촌 시장'을 관통하고 있다. 당시 '원고개'는 달성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한양인들이 길목이 있었으며, 한양으로부터 원님이 부임할 때나 임기를 마치고 한양으로 다시 돌아갈 때 쉬어 갔던 곳이다. 그 때마다 이 곳 마을 사람들이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면서 원님을 영접하고 전송하였다고 하는데 날피복춤은 여기서 유래한 것이며, 여기에 관련된 원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⁴⁾

당시 이 지역의 한 원님이 백성들에게 특별히 추앙을 받았는데 이 원님이 정사(政事)를 돌보다가 순직하자 고을 백성들이 이곳에 무덤을 만들고 춘추(春秋)로 제향(祭享)하였다. 그 후 이 고을 백성들은 순직한 원님의 외로운 혼령을 달래기 위해 제향 때마다 북을 울리면서 춤을 추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는 날피복춤이다.

비산농악에서는 다른 농악에 비하여 복춤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날피복춤은 비산농악에서 복춤만 따로 분리 발전시켜 오늘날 날피복춤이란 명칭으로 전승되었다. 날피복춤의 '날피'라는 말은 비산의 속 지명으로 '산이 날아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비산동에는 '날피'에 관한 전설이 다음과 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먼 옛날 달내(달천)라는 냇가에서 빨래를 하던 한 여인이 서쪽에서 나는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그 곳을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 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이 산은 원래 달성공원에 있던 작은 동산이었으나 와룡산 쪽으로 날아가던 중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산이 날아온다."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부정을 타서 더 이상 날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떨어져 '날피'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화를 배경으로 이 동산을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피'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 '비산(飛山)'이라 쓰여 오늘날 비산동의 지명이 되었다고 전한다.⁵⁾

날피복춤은 원래 비산농악에서 분리되지 않고 함께 전승되어 왔으나, 1983년

4) 앞의 글, p. 34.

5) 현재 달성공원 중앙에는 날피의 흔적으로 보이는 움푹 파인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의 면적은 약 2만m² 정도로 날피동산 아랫부분의 면적과 동일하다고 한다. 지금의 날피는 달성공원에서 북쪽 방향으로 약 1.5km 거리의 북비산 로터리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의 높이는 평지에서 25.6m정도의 그리 높지 않은 동산이다.

10월 23일, 경북 안동에서 개최된 '제24회 전국 민속경연대회'에 공식적으로 첫 출연한 것을 계기로 비산농악에서 정식 북춤으로 분리되어져 연행되고 있다. 이듬해인 1984년 7월 25일, 날피북춤은 대구광역시로부터 지방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으며, 북춤의 기능 보유자인 김수배는 대구광역시 제1호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비산농악과 날피북춤 전승집단은 날피북춤 기능 보유자 김수배를 단장으로 <비산농악·날피북춤 보존회>를 조직하였으며 비산농악과 함께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2동 1097-23번지에 본부를 두어 활동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날피북춤은 공연된 예술 단체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지 지금으로부터 불과 20여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향토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서 지역민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2. 진행절차와 대표적인 춤사위

날피북춤의 대표적인 춤사위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춤의 연행과정과 진행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북춤보다 특이한 동작을 대표적인 춤사위로 도출했다.

가. 진행절차

1) 질굿

'질굿'은 '길굿'의 경상도와 충청도의 방언으로 풍물재비들이 당산제나 가옥의 지신밟기를 하기 위하여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행군악을 지칭하는 말이다. '질굿'은 장단에 따라 '열림굿', '질굿', '길군악'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2) 정적궁이

본 마당의 첫째 마당은 '정적궁이'로 시작한다. '정적궁이'의 어원은 "정저 적궁"하고 북소리가 나는 대로 읊진 것이다. 비산농악과 날피북춤에서 사용되는 '정적궁이'는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지 않는 독특한 가락이다. '정적궁이'의 가락은 웅장한 북소리로 경상도의 남성적 기개를 느낄 수 있다.

3) 반직굿

둘째 마당은 ‘반직굿’으로 몸짓이나 행동 따위를 반으로 줄여서 한다는 ‘반(半)짓’에서 비롯된 말이다. ‘반직굿’의 ‘직’은 몸을 눌러 움직이는 ‘짓’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반직굿’을 다른 말로 ‘마당굿’ 또는 ‘자반득이’라 부르기도 한다.

4) 엮어빠기

셋째 마당의 ‘엮어빠기’는 복넘기의 춤사위에서 비롯된 말로 ‘엮는 것’과 ‘빠는 것’을 합성한 단어이다. ‘엮는 것’은 복넘기에 해당되며 ‘빠는 것’은 앞을상에 해당된다.

5) 다드래기

넷째 마당의 ‘다드래기’는 휘모리장단의 경상도식 표현으로 일명 ‘버꾸놀음’이라고도 한다. 전체적으로 매우 빠르고 씩씩한 느낌을 준다.

6) 물레들기

다섯째 마당인 ‘물레들기’는 ‘강강술래’를 경상도식으로 표현한 말로 팔월 한가위 때 여인들의 민속놀이인 ‘강강술래’를 북춤에 응용한 것이다. ‘물레들기’라는 말은 북재비들이 원진의 바깥을 향하여 옆으로 경충경충 뛰는 모습이 마치 ‘물레가 도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7) 허허굿

여섯째 마당 ‘허허굿’은 “허허”라는 웃음소리에서 유래된 마당의 명칭으로 일명 ‘호호굿’이라고도 한다. “허허”라는 웃음소리에는 잡귀를 몰아냈으므로 기분이 아주 좋다는 뜻이 담겨 있다.

8) 오방진(五方陣)

일곱째 마당으로 동서남북 중앙의 다섯 방위에 화평과 강녕을 비는 춤판이다.

9) 모듬굿

여덟째 마당은 ‘모듬굿’으로 여러 가락이 모여 있다고 하여 ‘모듬’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모듬굿에서는 서로 다른 장단을 급하게 교차시켜 놓은 마당이다. 주

로 '자진모리장단' 과 '사사꾸장단' 을 서로 대비시켜 장단의 변화를 유도하며 느린 속도에서 빠른 속도로 바뀌어 속도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10) 개인가락

아홉째 마당은 '개인가락' 으로 다른 풍물 소리를 일체 내지 않고 유일하게 북소리만으로 이루어진다.

11) 살풀이굿

굿판의 살풀이에 해당하는 '살풀이굿' 에서는 굿거리장단을 사용하며 환희와 풍요를 상징하는 우렁찬 북소리와 흥겨운 어깨춤을 동반한다.

12) 개인놀이

열한째 마당은 소수의 북재비들이 자신의 묘기를 펼쳐 보이는 '개인놀이' 이다. '살풀이굿' 의 마지막부분에서 북재비들이 뒤로 물러난 후 기량이 뛰어난 세 명 정도의 북재비가 가운데로 나와 각자 기량을 뽐낸다.

13) 덧배기굿

열두째 마당은 날피북춤의 마지막 마당으로 '덧배기굿' 이라고 하며 일명 '덧배기 들놀이' 이라고도 한다. 북재비들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장단에 맞추어 덩실 덩실 어깨춤을 춘다.

14) 인사굿

열두 마당이 모두 끝난 후 북재비들이 구경꾼들을 향하여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연행과정을 통해 날피북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춤사위를 도표로 만들어 보면 <표 1>과 같다.

12마당을 이어주는 이음새 춤사위들은 주로 북을 치며 걷거나 뛰는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북치며 걷기에서 변형된 다양한 점층법적인 춤사위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날뵈복춤 열 두마당의 춤사위 비교 도표

마당 순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마당명	정적궁이	반직굿	엎어빼기	다드래기	물레돌기	허허굿	오방진	모듬굿	개인가락	살풀이굿	개인놀이	덧배기굿
춤사위	연풍대	연풍대	앉을상	연풍대	엎뛰기	앞뛰기	복넘기기	뽕뛰기	덧배기춤	복넘기기	앉은채	덧배기춤
	엎어빼기	앉을상	복넘기기	쟁걸음			앉을상	엎뛰기	겹걸음뛰기	모듬채		복넘기기
	복넘기기	엎어빼기	엎어빼기	엇갈리기			복차며걷기	복넘기기	외발제자리돌기	엎얼루기		덧배기춤
			복차며걷기	복차며걷기				앉아서물우기		앉아서물우기		





나. 대표적인 춤사위

날뵈복춤의 특징을 대표하는 연풍대, 정적궁이 그리고 덧배기 춤사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연풍대

‘연풍대’는 원주를 돌며 추는 춤사위로서 요즘을 구부렸다 일어나 도는 대신 허

〈표 2〉 연풍대

		〈연풍대〉									
춤사위											
춤사위 설명	원발을 딛으면서 그 축으로 오른발을 모아 휘감듯이 회전한다. 즉 ‘짚고 돌고’의 형식으로 첫 박에는 180°씩 돈다.	원발을 딛는 만큼 시계반대 방향으로 공간이동을 하며, 물어주는 느낌으로 힘차게 회전하는 것을 반복한다. 둘째 박에 1회인 360°를 돈다.	이때 몸과 북의 방향은 일치하며, 북을 메고 있는 팔은 자연스럽게 뻗은 상태를 유지한다.	(복넘기기)와 함께 날뵈복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춤이다.							
박자	○ 간	○ 개	○ 개	○ 개	○ 개	○ 간	○ 개	○ 개	○ 개	○ 개	○ 개

〈표 2〉 계속







	구성1) 정적궁이전 반짓굿과 다르래기	구성2) 덧배기굿
구성		

리를 뒤로 젖히고 한 발을 내디디며 유연하게 도는 춤사위를 일컫는다. 날땀북춤에서도 원주에서 추며 거의 시계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원형춤이다. 주로 '반짓굿'과 '다르래기', '덧배기굿'에서 춤을 추었다. 그리고 날땀북춤에서 연풍대는 항상 왼발로 시작되는 춤사위이다.

2) 정적궁이

'정적궁이'는 춤사위로 설명하기보다는 음악적인 측면에서 볼 때 농악과 무가

〈표 3〉 정적궁이






		〈정적궁이〉									
춤사위											
춤사위 설명	진행방향은 시계반대방향을 기본으로 하며, 양발을 교대로 내딛으면서 가볍게 뛰어주며, 정적궁 장단에 맞춰 북을 친다. 즉, 첫박에 진행방향의 45도 각도로 원진의 안쪽 방향을 쳐다보면서 뛰는다.		둘째 박에서는 왼박 사선 45° 앞쪽을 번갈아 오른발을 딛으며 뛰는다.		셋째 박에서는 첫박의 동작을 반복한다. 첫째 박에서 셋째 박까지 "딩딩 텅 텅"을 친다.	넷째 박에 둘째 박처럼 뛰며 북채가 하늘을 향하듯이 오른팔을 사선위로 가볍게 들어 올린다. 넷째 박에서는 북채를 높이 치켜든다.					
박자	○	○	○	○	○	○	○	○	○		
	간	지	간	강	간	지	간	강			
구성	구성1) 정적궁이										
											

(巫歌)에 쓰이는 민속악장단 중에 하나로 각 지역마다 명칭과 장단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⁶⁾ 그러나 비산농악과 날피북춤에서 사용되는 ‘정적궁이’는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지 않는 독특한 가락의 웅장한 북소리로 경상도의 남성적 기개를 느끼게 한다. 날피북춤 열두 마당의 시작 마당인 첫째 마당에서부터 웅장한 북소리와 더불어 북재비들의 절도 있고 간결한 춤사위는 풍물의 여러 요소들 중 군사गत적인 요소가 잘 반영된 것이라 보고 있다.⁷⁾ 주로 원형으로 돌거나 원형에서 지그재그로 동선을 만들며 춤춘다.

3) 덧배기춤

‘덧배기춤’은 경상도의 대표적인 춤사위로써 춤의 즉흥성과 자유분방한 멋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종의 허튼춤의 한 형식으로 본다. 덧배기춤은 잘 짜여진

〈표 4〉 덧배기춤

〈덧배기춤1〉												
춤사위												
춤사위 설명	상체를 세우고 두발 모아 정면으로 뛰어 앉는다.			일어서면서 왼발을 뒤고 딛고, 오른발은 앞으로 뻗듯이 찬다.			앉았다가 뛰기를 연이어 반복하기도 하고, 사이에 앞에서 소개한 〈앞을상〉 동작과 함께 추기도 한다.			위 덧배기춤의 날피북춤 내 모든 동작들이 자유춤으로 활용되며, 각자의 흥에 맞게 자유롭게 춘다.		
박자	○			○			○		○		○	
	갱			개	갱		갱		갱		갱	
구성	1) 살풀이굿의 솔로춤						2) 자진모리모듬굿, 덧배기굿					
												

6) 경기도, 충청도, 전라북도에서는 ‘정적궁이’를 ‘덩덕궁이’로 부르며 전라남도에서는 ‘평평이딜궁’으로 부른다. 함경도에서는 ‘정적기’라고 부르며 경상도에서는 ‘정적궁이’나 ‘정자궁이’ 또는 ‘무정자궁이’라고 부른다.

7) 유대안(2006), 『날아온 산 사람들 그리고 날피북춤』, 계남영남학총서2, 계명대학교출판부.

판굿에서 정해진 틀에 구속받는 춤사위가 아닌, 경상도 지역의 탈춤과 농악, 향토 춤에서 두루 추고 있는 춤이다. 날피북춤도 ‘덧배기춤’과 함께 ‘몰우기’, ‘옆 얼루기’ 등으로 ‘덧배기춤’의 백미인 ‘배김사위’를 가지고 있다. ‘배김사위’는 그 어원에서 ‘배기대’라는 동사가 ‘배김’의 명사화로 되어 춤사위로 명명되었고 이 뜻은 ‘뭇을 박는다.’라든지 ‘땅에 무엇을 내리치듯이 박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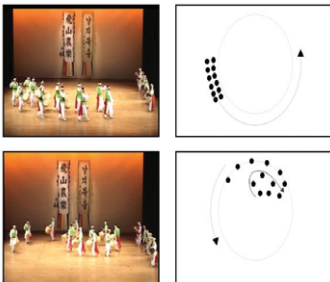
‘덧배기춤’의 구성은 이열 횡대로 마주보거나 자유로운 구성 아래 ‘살풀이굿’이나 ‘모듬굿’, 덧배기굿마당에서 개인의 춤사위 기량을 발휘하며 멋스럽게 춘다.

3. 춤의 구조와 의미

날피북춤의 공간구성에서 드러나는 춤의 구조는 길굿의 之형과 대부분의 각 마당에서 볼 수 있는 원형과 오방진형, 이열 종대나 횡대이다. 이러한 공간구성이 갖는 대형의 구조와 진행절차의 구조 등에서 춤사위를 살펴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가. 길굿의 之형과 원형춤

길굿은 풍물꾼 스스로 흥을 돋우거나 본격적인 판굿에서 풍물을 치기 위한 준비 기능을 갖는 동시에 풍물꾼들이 장단에 맞추어 행진을 하므로, 결속과 주위 사람들에게 놀이판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는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열림을 위한 서두이다. 또한 길굿에서 길의 의미는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길이며, 자연을 넘어 초자연적인 존재와도 만날 수 있다. 따라서 길은 초자연적 존재와 인간을 이어주



〈그림 1〉 길굿의 之형과 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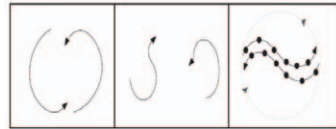
면서 새로운 의미가 생겨난다. 더구나 그러한 길을 통해 초자연적 존재인 공동체 신(神)을 만나고 그 길에서 놀이로서 맺어질 때 일상의 물리적 길과는 다르게 여겨진다. 이때의 길굿은 일상의 길놀이와 구분된다. 신을 맞으면서 만나는 길이며, 길군악을 울리며 신을 모시는 일로서 곧 신의 행렬이다. 따라서 신과 함께

하는 길놀이는 초자연적인 존재와 인간이 길 위에서 펼쳐내는神明(神明)이고 축제(祝祭)이다.⁸⁾

우리나라는 과거 농업국가로써 김매기 두레에서 마지막 끝나는 날은 길놀이가 대규모로 펼쳐졌다. 이때 일꾼들은 한 해 농사의 어려운 고비를 끝내면서 두레를 행하는 데 위세당당하게 길놀이를 펼치고 마을로 돌아와 쫄매기 참놀이나 백중날의 축제를 만끽하였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어울려 공동체의 판을 형성하며 대동을 이루고 즐기며 노는 것이다. 이때의 길놀이는 공동체의 신을 모시고 대동놀이판으로 전환되면서 신을 즐겁게 하고 마을의 안녕과 한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축원의례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산농악이 모태가 된 날뽕복춤은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안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나. 태극형 구조

다드래기는 휘모리장단의 경상도식 표현으로 일명 ‘버꾸놀음’이라고도 한 것으로 보아 경상도 방언으로 해석한다면 ‘버꾸친다’는 것은 ‘정신없이 혼을 뺀다’라는 의미이다. 바로 정신없이 혼을 빼지만 씩씩하고 강렬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비움과 채움’의 한 방법과도 상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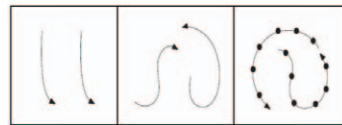


〈그림 2〉 다드래기의 태극진대형

오방진풀이에서 다시 태극이 드러나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순응하는 우리민족의 문화정신으로 볼 수 있다.



주희(朱熹)는 태극을 ‘만물의 근원’으로 해석했다. 천하의 모든 만물은 반드시 그런 까닭과 당연히 그러해야 할 법칙이 있는데 여기서 태극은 만유의 창조적 원리가 되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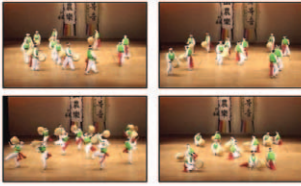


〈그림 3〉 진풀이에서의 태극

8) 남성진(2007), 길놀이의 제의적 특성과 전통, 『실천민속학연구』10, pp. 88~89.

다. 그러므로 태극은 우주 만물의 근거이며, 우주로 하여금 있어야 할 모습을 부여해주는 원리의 성격을 지닌, 궁극적 실체, 즉 존재 혹은 본체(本體)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착되었다⁹⁾고 볼 때 다드래기의 다음 마당은 날뫼북춤으로서의 중심과장과 새로움의 창조적 과장으로서의 의미를 담아야 할 것이다.

다. 오방진



〈그림 4〉 오방진대형에서 '북넘기'와 '앞을상'

오방진은 군사국적인 용어에서 보는 해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의 기운을 담은 의미로써 봐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 이유는 오행설은 우주 만유의 본질을 이루는 요소를 木·火·水·金·土의 다섯 가지로 간주하고, 삼라만상, 즉 자연과 인생은 모두 이 다섯 가지의 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오행의 소장(消長) 활동의 법칙에 따라서 인생의 성쇠화복(成衰化福)이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다.

음양은 태극에서 분리·발전해서 만물을 이룬다는 것이고, 오행은 오행의 기(氣)가 활동해서 만물을 이룬다는 것으로서 이들은 서로 공통되고 있다. 다만 음양은 대립적인 관념에서 출발하였고, 오행은 인생에 필요한 재료적인 관념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상생의 기운을 가지는 대목으로써 오방진풀이는 비산농약의 발생에서 보면 지신밟기 형식으로 발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방진마당 다음으로는 모듬굿으로서 다양한 춤사위로 풍성한 장을 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날뫼북춤의 제의성과 사회·문화적 기능

고대로부터 북의 제의성은 토렘사상에도 잘 드러나고 있지만 날뫼북춤은 춤의

9) 至於天下之物, 則必各有所以然之故, 與其所當然之則, 所謂理也, 『大學或文』, 시마다겐지(1967), 『朱子學과 陽明學』, 김석근·이근우(역)(서울: 까치, 2001), p. 105.

생성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제례의식을 가지고 있고, 무구한 역사의 흐름에 따라 마을의 사회적 기능과 아울러 문화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이에 제의성과 집단 공동체, 놀이 축제적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제의적 기능

춤은 그 기원에서 볼 때 생산의 풍성함을 기원하는 원시 농요제이나 부락의 안녕, 번영을 비는 부락굿 등이 목표하는 바는 제의를 통한 자연과 인간의 소통, 화해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전승되는 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제의적 전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춤은 애초 성스러운 종교적 제의에서 출발했으나 유희성을 강하게 지니게 되어 오늘날에는 종교적인 신성성(神聖性)이 거의 퇴색되었다. 우리 춤의 고정(固形)인 제천의례(祭天儀禮)는 농공시필기에 하늘에 제사 지낸 후 무수한 사람들이 음주가무하며 즐기는 것이 관례였다. 단순히 술 마시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 바로 춤이 신성한 종교행사였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춤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즉 춤의 제의성은 삶에 있어서 공동체의 소망이 드러나는 것이다.

오늘날의 날피북춤의 모태가 비산농악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농악(農樂)은 농경 생활이 바탕이었고, 노동·제의·유희적 측면을 지니는 농민의 문화인 것이다. 이상진은 농악이 부족사회 때부터 농민이 곧 군민이 되고 군인이 곧 농민이었기 때문에 농민악은 곧 농군악(農軍樂)이라고 하였다.¹⁰⁾ 조선시대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병(兵)과 농(農)이었다. 태평의 기준 또한 군사적 안녕과 풍농이었다. 때문에 병과 농은 국가적 중대사인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예(禮)에 국왕의 무업(武業)을 통한 나라의 안정을 칭송하는 무무(武舞)가 있었고, 농업과 관련된 사직(社稷), 선농(先農), 선잠(先蠶), 풍(風), 운(雲), 뇌(雷), 우(雨), 악(嶽), 해(海)등의 제사가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¹¹⁾ 또한 날피북춤의 첫 시작인

10) 성윤선(2010), 농악과 조선시대 군제와의 관계성,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2.

11) 앞의 글, p. 34.

길곳에서도 길이 갖는 원초적인 제의성을 재고해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즉, 신과 함께 하는 길놀이는 초자연적인 존재와 인간이 길 위에서 한판 펼쳐내는 신명(神明)이고 축제(祝祭)이다. 바꾸어 말해 길곳은 즐거움과 재미를 신과 나누며 공동체가 모듬을 이루어 사는데 아무 탈 없도록 간곡히 청하는 일이고 공동체의 안녕과 삶의 풍요로움을 염원하면서 푸진 구정놀이를 펼쳐지는 한판 대동굿이다.¹²⁾

이러한 제의적인 흔적은 길곳으로서의 입장뿐만 아니라 정적궁이 마당에서도 알 수 있다. 정적궁이장단은 농악과 무가(巫歌)에 쓰이는 민속악장단 중에 하나로 날피북춤에서만 독특한 장단으로 남아 있는 점에서 볼 때 무가라는 제의적인 양상을 알 수 있다. 춤사위에서도 '북 넘기' 나 '엮어 빼기' 등에서 하늘을 보며 천신(天神)을 향하고, 땅을 보며 지신(地神)을 숭배했다는 대목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날피북춤의 전설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날피북춤은 백성들의 추앙을 받았던 한 원님이 순직하자 이 원님을 추모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무덤을 쓰고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때마다 의로운 원님의 혼령을 위해 북을 울리며 춤을 추었는데 이것이 날피북춤으로 전승된 것이라 한다.

이렇듯 날피북춤은 원초적으로 제의적인 마을곳에서의 축원적 기능을 비롯하여 생활과 결부된 제의적 기능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제의들은 개인의 기복보다는 공동체의 기복을 위해 실시되었고, 참여대상 역시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적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때문에 날피북춤의 제의적 기능의 수행과정은 공동체적의식을 매개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 같이 주술종교적인 제천행사와 집단사회의 풍속에서 비롯된 날피북춤은 서민들의 생활습속과 관련을 맺으면서 이어져 왔고, 마을사람들을 돈독히 하는 신앙놀이, 작업 등의 공동생활 중심을 이루며 그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2. 집단공동체적 기능

공동체는 인간의 본성이 생성, 반영, 개발되는 생활 현장이며, 공동체적 특성으로는 공동의 목표와 가치, 사회적 유사성, 공동의 관습과 전통, 공동의 귀속감, 공

12) 남성진(2007), 길놀이의 제의적 특성과 전통, 『실천민속학연구』10, p. 89.

동의 규범 등을 갖는다. 이에 따라 구성원 간 일체감과 연대성이 증대되고, 각각의 자아를 확인하면서 인격과 문화를 창출하는 사회생활의 근원이 되고, 개인과 사회의 중간 지점에서 여러 제도의 기능 수행으로 인간 본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기본 단위의 사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춤은 공동체의식의 공유와 그 실현이라는 배경아래서 진행되어 왔고 춤에서의 공동체 의식은 민중들의 실제 생활상의 유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사를 위주로 하는 그들의 노동생활은 마땅히 연희를 필요로 하였고 그러한 연희를 통해 그들은 반복적인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아울러 삶의 고통이나 나아가 사회적인 억압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또한, 춤의 내용으로 볼 때 서민계층의 생활 경험을 엮은 것으로 한국인의 낙천적인 성격과 여유가 담겨 있으며 이 춤을 통해 평소의 불만과 갈등을 해소하고 이어지는 뒤편이에서는 춤을 추는 사람들과 관중들이 한데 어울려 춤을 춤으로써 하나로 단결되는 동시에 넘치는 생명력을 되찾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옛 농경사회에서는 농사의 효율적 생산을 위해 공동체 생활인 두레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두레들의 공동체적 생활은 두레꾼들의 연대의식과 노동의 결속을 강화하는 작용을 하였다.

날피복춤 역시 노동과정에서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고, 일의 능률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공동노동에 즐거움을 창출함으로써 쾌락화의 기능과 협동생활을 하는 기능, 마을사람들이 분열되지 않고 단결하도록 하여 사회적 연대와 협동적인 생활공동체로 통합하는 기능을 하였다. 결국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우리 의식을 일깨워주는 기능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날피복춤이 제의성을 띠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집단 공동체로써 문제해결을 한 점은 제의성이 갖는 공동체 의식 고취에 역점을 두고 재고해야 한다. 또한 군사적인 요소를 띤 오방진 마당이나 정적궁이마당, 앗을상 등의 춤사위를 보더라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집단적인 공동체 의식으로 소통을 희망한 우리 민족문화의 하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특히 날피복춤의 서두 시작인 길곳이 갖는 공동체 의식에서 나타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어울려 공동체의 판을 형성하며 대동을 이루어 즐기고 있으며

이때의 길놀이는 공동체의 신을 모시고 대동놀이판으로 오면서 신을 즐겁게 하고 마을의 안녕과 한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축원의례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놀이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길놀이를 연희하는 놀이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과 더불어 공동체 문화를 창출해 내고 있다. “길놀이 과정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모든 사람들을 놀이에 받아들이는 개방성, 포용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길놀이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여 차별없는 축제적 성격을 갖추고 있다. 즉, 마을이나 고을전체, 또는 그 영역을 넘어서서 지역 구성원의 일체감을 갖게끔 하고 온갖 억압적요소를 깨뜨리고 함께하는 축제판이 되는 것이다.

날피북춤은 함께 일하고 춤추며, 함께 나누는 동안 우리의식을 갖게 함으로서 공동체적 기능을 갖고 있다. 즉, 날피북춤은 사회적으로 서민계층의 연대감을 확보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희구사상(希求思想)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공동체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날피북춤의 본질이 현대적으로 바르게 계승된다면 그 양태는 지역공동체로서 춤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민족정신인 ‘우리’ 라는 공동체적 의식을 부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놀이 · 축제적 기능

날피북춤의 12마당은 힘찬 역동성에 자신을 몰입하여 던지지 않으면 흥과 신명을 느낄 수 없다. 어떤 춤이든 다 마찬가지로겠지만 북이 울리는 북소리의 흥과 몸짓의 춤이 함께 어우러져 더욱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한순간의 신명이 신지퍼지므로써 우리는 스스로 자유로움에 빠져들고, 몰입하여 자기를 잊어버리는 망아(忘我), 몰아(沒我)의 경지에 이르러 그 현상 내지는 사물의 본질과 하나가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자체가 바로 재미의 그 본질을 넘어 놀이 속에 표류해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곧 풍류(風流)와 합일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말의 ‘놀이’에는 종교, 신앙, 의례, 굿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날

뫼복춤이 내재된 제의성과 공동체 의식과 효(孝)를 넘어서 군신(君臣)의식의 투철함에는 신앙과 종교보다 더 깊고 높은 정신이 담겨져 있다고 여겨진다. 덧붙이면 의례로서의 놀이, 생업과 뚜렷한 구별을 할 수 없는 놀이, 잡다한 예술적 요소와 혼연일체를 이루었던 놀이는 인간생활방식이 변하고, 의식이나 지혜가 발달함에 따라서 점차 음악적인 것과 무용적인 것과 극적인 것들로 굳어지게 되어 이러한 것들을 놀이¹³⁾라고 할 때 날뫼복춤이 갖는 놀이성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게다가 흥을 부추기고 신명을 고조시킬 수 있어야 놀이로서 제격이다.

신바람이 나지 않으면 놀이의 기분을 맛보기 어려운데 이는 놀이의 신바람이 세상살이의 근심을 잊게 하고 경직된 육체를 유연하게 풀어주기 때문¹⁴⁾이라면 더욱 더 그렇다. 날뫼복춤은 서민들의 생활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을 하다가 반복되는 동작에서 비롯된 신체적인 결함이나 근육의 굳어짐을 춤으로 풀었다. 동시에 일의 고통을 춤의 재미로 덜어주고 신명으로 분위기를 전환시켜주며 일로부터 소외를 느끼지 않게 하는 구실을 하였다. 그것은 춤을 통해서 노동을 즐거움의 놀이로 창출하고 이로 인하여 노동의 능률을 향상시켜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날뫼복춤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현실적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공감력을 지닌 재미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놀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춤의 놀이를 통해 참여자 모두 일체감을 형성하여 즐거움으로서 더욱 즐거워지는 대동놀이적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축제(祝祭)는 인류의 집단생활과 그 기원을 같이하여 왔다. 축제는 인간이 신에게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제의(祭儀)·종교적 행사로서 행해져 왔으며 공동체 사회를 더욱 결속시키고 발전적으로 이끌어온 원동력이 되어 왔다. 우리의 조상들은 예로부터 가무(歌舞)를 즐기며 살아온 민족으로서 지혜롭게도 일상의 삶 속에서 주기적으로 축제를 통하여 존재의 근원에 대한 확인과 새로운 삶의 의지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를 만들어 왔다.¹⁵⁾ 원래 축제란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제례적

13) 조경만(1986), 두레의 일과 놀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2-34.

14) 김지하(1986), 『공동체 문화』 (서울: 도서출판 공동체), p. 114.

15) 문화체육부(1996), 『한국의 지역축제』 (서울: 문화체육부), p. 4.

(祭禮的)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신에게 무엇인가를 제시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상적인 신앙이나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끌어내고 스스로 용기를 얻으려는 행위, 즉 주술적인 행위가 축제의 원형이 된 것이다.

엘리아데(M. Eliade)에 의하면 신성이 있는 시간으로의 회귀, 즉 세속적인 존재를 이탈하여 성스러운 곳으로 회귀하는 시기를 축제기간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세속의 시간은 질서(Cosmos)가 존재하는 일의 시간이라면 질서가 사라진 혼돈(Chaos)을 통해서만이 새로운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 혼돈의 상태는 무질서하긴 하지만 창조성을 가지고 극복 과정과 순환 과정을 통해 질서는 회복될 수 있는 속성을 지닌다. 그 혼돈과 무질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난장(orgy)이라고 하는데 이 난장이 축제 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이다.¹⁶⁾ 이 난장은 한 공동체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규범과 질서의 상태로부터 이탈된 해방의 자유, 신명의 상태이다. 이 해방감을 맛볼 수 있는 신성과 세속이 부딪히는 난장판이 축제인 것이다. 축제는 일상과 대립이자, 일상에서의 해방이라고 볼 수 있다.

날피복춤을 통해 사람들은 억압된 감정을 발산시켜 심신을 정화하고 더 나아가 삶이 갖는 다양한 갈등들을 해소하였을 것이다. 마을사람들은 척박한 자연환경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의지가 아닌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 억눌림이 쌓여 한(恨)이 되었고, 마을사람들은 춤판을 벌이면서 잠시나마 해방되고 구속 상태에서 방임을 맛보았는데, 이것이 신명풀이로 표현되었다. 이 신명난 춤은 단순하게 생활상의 표현만이 아니라 어쩌면 두려움을 떨쳐버리려는 생명을 기약하려는 삶의 춤이며, 예술적 꿈을 동시에 실현하려는 몸부림이었을 것이다. 목혔던 마음과 오그라든 몸으로 신명나는 춤을 춤으로써 온갖 갈등을 풀고 고통에서 해방되고자 하였다. 마을사람들은 이 춤을 통하여 긴장에서 오는 갈등을 조화롭게 극복하였고, 또한 내재하고 있는 한과 맺힘이 표현되어 발산되고 해소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 있었다.

축제는 되풀이 되는 가운데 전승된 기억과 체험과 의식을 남기며 믿음과 제사와 생활을 그 축제 속에서 반영시키므로서 문화의 전통을 이어가는 전통적 축제 뿐

16) M. Eliade, 『종교의 의미』, 박규태(역)(서울: 서광사, 1990), pp. 123~124.

아니라 오늘날에도 축제가 존재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¹⁷⁾ 이제 날피북춤이 진정한 의미의 축제로서 더욱 활성화된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현대성과 전통성이 융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날피북춤은 이러한 역할을 주도해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복원, 계승, 재창조 될 필요성이 있다.

IV. 결 론

대구지역의 날피북춤은 16세기 이후부터 대구광역시 비산동 '날피' 를 중심으로 발생된 까닭에 그 내용과 과정이 비산농악과 매우 흡사하다. 비산동의 정월 대보름날 관행되어 온 비산농악의 지신풀이인 천왕메기와 함께 발전되어 왔다. 본래 날피북춤은 생성 당시 이 고을의 원님을 영접하고 환송할 때, 그리고 고을 백성에게 추앙받던 한 원님이 순직한 후, 그 원혼에 대한 제향의식에서 비롯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민중의 놀이마당과 무대예술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날피북춤의 유래와 전승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춤사위 연구를 통해 춤의 구조와 의미를 동양철학과 결부되어 있는 점을 조사하였다. 또한 제의성의 성향과 집단 공동체적이며 축제적 기능을 통해 춤의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날피북춤 절차는 놀이꾼들이 입장하는 길놀이의 질굿을 시작으로 정적궁이, 반직굿, 엮어빼기, 다드래기, 물레돌기, 허허굿, 오방진, 모듬굿, 개인가락, 살풀이굿, 개인놀이, 그리고 마지막 텃배기굿을 하고 인사를 한다. 날피북춤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경상도 특유의 텃배기 가락에 의한 춤사위와 남성적 기개가 넘치는 군무이다.

그리고 공간구성에서 드러나는 춤의 구조는 질굿의 之형과 대부분의 마당에서 볼 수 있는 원형과 오방진형, 이열 중대나 횡대이다.

17) 이상일(1979), 축제의 기능과 향토문화제의 비판, 『한국문화인류학』11, p. 223.

날피북춤의 제의성과 사회문화적 기능을 살펴보면 첫째, 날피북춤은 원초적으로 제의적인 마을굿에서의 축원적 기능을 비롯하여 제례의식인 생활과 결부된 제의적 기능이 있었다. 둘째, 날피북춤은 사회적으로 서민계층의 연대감을 확보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체적 기능이 있었다. 셋째, 춤의 놀이를 통해 참여자 모두 일체감을 형성하여 즐거움으로써 더욱 즐거워지는 놀이적 기능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춤을 통하여 긴장에서 오는 갈등을 조화롭게 극복하였고, 또한 내재하고 있는 한과 맺힘이 표현되어 발산, 해소하는 축제적 기능이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풍속과 사회, 문화가 어우러진 날피북춤은 사회변화와 함께 고유한 지역성을 지닌 특징이 있고 다양한 형태로 집단의 문화와 사회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춤은 민속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풍부한 내용의 짜임새와 예술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날피북춤이 그 원형을 바탕으로 재창조되고 완성된 무대화가 노력되어진다면 지역민의 정서순화는 물론 집단적 신명과 동질정서를 창출하여 사회통합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지하(1986). 『공동체 문화』. 서울: 도서출판 공동체.
- 문화체육부(1996). 『한국의 지역축제』. 서울: 문화체육부.
- M. Eliade. 『종교의 의미』. 박규태(역). 서울: 서광사. 1990.
- 시마다겐지(1967). 『朱子學과 陽明學』. 김석근·이근우(역). 서울: 까치, 2001.
- 유대안(2006). 『날아온 산 사람들 그리고 날피북춤』.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 남성진(2007). 길놀이의 제의적 특성과 전통. 『실천민속학연구』, 10: 85-112.
- 박재희(2001). 날피북춤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운선(2010). 농악과 조선시대 군제와의 관계성.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대안(2004). 날피북춤의 장단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일(1979). 축제의 기능과 향토문화제의 비판. 『한국문화인류학』, 11: 222-223.

- 조경만(1986). 두레의 일과 놀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명호(1998). 대구지역의 날미복춤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혜정(1995). 대구날미복춤과 밀양오복춤의 비교 연구.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논문투고일	2013년	1월	15일
심사일		1월	16일
심사완료일		1월	20일

Abstract

The Contemplation of Ritual Features and Social Fuctionalies for Nalmoe Drum Dance

Kim, Mi-sook
Professor of Da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origin and transmission of the Nalmoe Drum Dance. After studying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the dance with the connection of Oriental philosophy through the research for the representative dancing movements, the author looks into the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the dance with the ritual features, communities and festival functions.

The social and cultural functions of the Nalmoe Drum Dance are as follows. First, it had basically praying functions at the village-exocism and ritual functions combined with people's lifestyle. Second, it had communal features for socially securing the solidarity of populace and completing the common purposes. Third, it had playing functions all participants, through play of dance experienced to enjoy by forming a more enjoyable and sense of unities. Finally, the general public overcame the conflict came from tension with the dance and it had also festival functions which released and solved the people's inherent sadness and sorrow.

Likewise, the Nalmoe Drum Dance being harmony with custom, society and culture features a unique locality with social change and makes a great contribute to various forms of collective culture and forming society. In addition, it has a great folk value and area's rich texture and artistic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uniqueness of local distinctiveness.

The author examined the ritual features and the social functionality of the Nalmoe Drum Dance. If the Nalmoe Drum Dance takes efforts for recreating performance based on the origin and making complete stages, we can anticipate the great roles of dance which make the local people's refined emotions and social integration with generating collective cheerfulness and homogeneous affective.

www.kci.go.kr

keywords: Nalmoe Drum Dance(날뫼북춤), ritual features(제의성), functions(기능),
culture(문화), society(사회)

www.kci.go.kr